사이버범죄↑·절도↓…전남 작년 112신고 하루 1986건

전남경찰청 치안통계 제작
총 범죄 일 평균 136.9건
112신고 1년 새 15.5%↑

지난 한해 전남지역에서는 총 72만건이 넘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범죄는 약 5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경찰청이 '2023년 전남경찰청 치안통계'(잠정)를 바탕으로 제작한 '한 눈에 보는 전남치안, 전남의 하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112신고는 72만4789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986건의 신고 전화가 들어온 셈이다.

112신고는 전년 62만7774건(일 평균 1700건)에 비해 15.45%(9만7015건)가 늘어난 것이다.

총 범죄 건수는 전년 4만8100건에 비해 3.89%(1872건) 증가한 4만9972건으로, 하루 평균 136.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야외 활동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범죄 건수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남 역시 비슷한 추세가 반영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갈수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전남에서도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에서는 지난 한해 사이버범죄가 7290건, 하루 평균 2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7012건)과 비교해 3.96%(278건) 증가한 수치다.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8358건에서 8373건(일 평균 22.9건)으로 0.18%(15건) 소폭 늘었다.

절도와 가정폭력, 외국인범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는 감소세를 보였다.

우선 절도는 지난해 5686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15.6건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6153건보다 7.59%(467건) 줄어든 것이다.

일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1년 새 640건에서 489건으로 23.59%(151건)나 급감했다.

가정폭력은 하루 평균 19.2건이 접수돼 전년(7716건) 대비 9.16%(707건) 감소했으며, 외국인범죄도 전년(851건)보다 3.17%(27건) 줄어든 824건(일 평균 2.3건)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정성치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의 지역민들이 치안통계를 확인하고 안전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게 됐다"며 "지역 내 치안수요를 비롯해 보다 많은 정보를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설 앞두고 가족과 성묘 설 명절을 앞두고 28일 경기 파주 동화경모공원에서 성묘객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있다.

대입 비리 첫 적발 시 정원감축…'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정부가 입시 부정·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입학정원 5%를 감축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처음 적발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되며 2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0%의 정원을 감축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학시험 계획이나 평가, 입학전형을 조작한 경우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2차로 다시 입학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1차보다 2배 늘어난 입학정원 10% 선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그밖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입학정원 1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을, 2차 위반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29일까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에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면 기자

정부, 설 맞아 여객터미널 등 공중화장실 집중 단속

내달 15일까지 전국 교통시설 등 공중화장실 점검

행정안전부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의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2월15일까지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우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만2754개에서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추가로 746개를 확충한다.

이에 더해 부산 진영휴게소 등 66개소에서는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로 여성화장실로 일시 전환하는 여성용 가변형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물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청소 주기도 단축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